

해방의 환호성을 통일만세소리로

조국해방의 날 8.15가 다가온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천지를 진감하며 울리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만세!》의 함성이 어제처럼 귀전에 삼삼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8월 15일은 조선의 열, 조선의 기상과 혈액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고 동방조선의 새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낸 력사의 날이다.

이날을 안아오시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는 함으로 시련에 차고도 간고한 길이었다.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애국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으로 항일성전을 선포하실 때 만일인민유격대는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일제의 관동군은 100만명에 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신식장비들로 무장되어있었다. 력량상, 무장장비상 대비조차할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조국의 해방은 그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구걸하여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하시였기에 수령님께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말에 결연히 백만대적과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셨던것이다.

어디서 무기를 가져올데도, 무기를 출 사람도, 또 국가적후방도, 그 어떤 외부의 원조도 없는 련약한 최악의 조건에서 반일인민유격대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고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유격전을 벌리었다. 식량도, 무기도, 탄약도 부족한 속에서 일제와의 격전은 형언치 어려운 악전고투의 현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갖 창건된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남만으로, 다시 북만으로 이어가시던 원정의 길이며 남파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 처창즈 유격근거지를 사수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 보천보의 불길과 간삼봉전투, 대마록 전투, 흥기하전투를 비롯한 대소전투들에서의 통쾌한 승리는 오직 전설적명장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어 이룩되였다.

유격적으로 그 어떤 강대한 적도 쳐물리칠수 있다는 백두령장의 단력과 기질은 항일대전의 나날에 신묘한 전법과 지략, 전술들을 낳았다. 동성서격, 승천입지, 일행천리, 유인매복전 등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 겨레에게는 항일전승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주장,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물쳐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시고 조국광복회와 같은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를 내오시여 선군의 총대와 함께 전민항쟁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절세의 애국자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제 34(1945)년 10월

이다. 해방후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어버이수령님의 넋과 뜻은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무궁변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우는데 있었다. 해방과 함께 시작된 위대한 민족분열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

통이고 불행이었다. 민족분열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수령님께서 하나의 조선로선, 하나의 통일로선을 확고히 건지하시며 조국통일3대헌장을 비롯한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의 민족분열세력의 반동일, 반민족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민

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수령님이시다. 애국애족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어버이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해방업적, 통일령도업적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출기차게 이어지고 더욱 빛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수십성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한생을 강그리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악랄하고 끈질긴 대조선적대적책동에 의해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선군의 보검

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시였으며 자주통일의 세시대, 6.15시대 현명하게 이끄시여 제2의 해방의 날인 7.27전승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고 안팎의 민족분열세력의 반동일, 반민족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민

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수령님이시다. 애국애족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어버이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해방업적, 통일령도업적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며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출기차게 이어지고 더욱 빛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수십성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를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한생을 강그리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악랄하고 끈질긴 대조선적대적책동에 의해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 선군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키시였으며 자주통일의 세시대, 6.15시대 현명하게 이끄시여 제2의 해방의 날인 7.27전승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고 안팎의 민족분열세력의 반동일, 반민족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지켜

60년전 공화국이 축포를 쏘아올린 7.27전승은 세기를 이어 련전현승으로 이어져왔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바로 그날 조선전쟁에 참가한 추종국가들을 사후해 《16개국선언서》를 고안하였고 정전은 휴식이다.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하면서 새 복침도발에 광분한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는 총포성없는 전쟁이 계속됐다. 1960년대의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90년대와 새세기에 들어와 계속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 해마다 그치지 않은 각종 전쟁연습행동에 의해 이 땅에서는 언제한번 평온한 때가 없었고 항시적으로 검은구름이 떠돌았다. 공화국처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제국주의의 가장 악랄하고 포악하고 끈질긴 위협과 압박, 봉쇄와 제재를 당해온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압살책동도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반제자주,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총포성없는 대결에서 조선은 련승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왔다.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될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지략, 무비의 단력과 배짱에 의해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일격에 제압분쇄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이자 민족의 운명이고 자주이고 존엄이라는 애국의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수십성상 권력강화에 신장력을 넣으시였고 1211고지, 오성산, 대덕산, 351고지를 비롯하여 최전연 최전방의 외진 섬소초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선의 전역을 눈보라 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 일행천리강행군으로 총휘무진하시며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안전을 백방으로 수호하도록 하셨다. 그이의 날과 날은 폭잡과 췌기밤, 야전리발과 같은 빨찌산식일과로 이어졌다. 그 길에는 온몸을 열

구는 대소한의 강추위를 무릅쓰고 걸으신 길도 있었고 삼복의 피약별아래 땀에 절은 야전복을 말리우며 이어가신 길도 있었다. 때로는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하루 1 000여리를 달리신 날도 있었다. 낫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넘고넘으신 철령과 야전차를 밀며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최전연 판문점의 새벽길, 외진 섬 소초의 풍랑사나운 외길은 지금도 조국수호의 길에 새겨진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의 만단사연을 전하고 있다.

선군령장의 전생애는 전사들과 같이 흠뻑새도 말고 모면이 자옥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되셨다고 하시며 언제나 전선에 계신 위대한 야전장군의 한평생이었다. 그이의 선군장정은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자니 이 길에서 순간도 멈춰설수 없다고 하시며 솟는 해와 지는 달을 전선길에서 맞고보내

며 이어가신 불분분류, 불철주야 애국헌신의 장정이였다. 조국수호와 인류의 반제자주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경모하여 로씨야신문 《두엘》은 이미 2001년 12월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대원수라고 칭송하면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유일하게 옳은 대응책을 세우셨기때문에 미국은 소말리아나 리비아,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조선을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였다. 조선의 이러한 군사정치적성과는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대원수로 높이 받들며모셔야 한다. 이것을 말해준다고 전했다. 인디아의 사회정치학 박사 비슈와나스는 《세계적인 명장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을 무한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만드셔서 제3차대전이나 세계대일렉전쟁을 막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주었다고 당당히 주장한다.》고 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교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미관계에서 성립된 외교적 기록들과 력사적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패했다.》고 했다.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여 공화국을 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정치권사호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펼쳐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사적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련전현승의 력사와 전통은 길이 빛나고 있다. 조국수호의 선군장정을 견고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이며 현명한 령도에 의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은 굳건히 담보되고있는것이다.

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며 가슴깊이 간직하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 설

신기한 예언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해방

피어린 항일혈 전으로 발돋움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명실공히 천출명장만이 이룩할수 있는 군사적기적이다. 항일대전사의 갈피를 번지면 그이께서 얼마나 비범한 선견지명과 군사적통찰력을 지니신분인가를 보여주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밤하늘의 못별처럼 무수하다.

항일대전이 한창일 때 왕청땅 차피거우마을의 조선사람들은 마주서기만 하면

럼 떠돌았다. 귀에 들리는 것이란 모두 불길한 얘기뿐이라 사람들은 해방은커녕 당대에 귀향이란 있을상실지 않겠다고 한탄하기가 일쑤였다. 한번은 마을의 좌상으로 불리우는 로인이 한때 로씨야에 가서 살았다는 한 젊은이에게 장차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느냐고 넌지시 물어 보았다. 마을에서 계몽을 한다는 그 젊은이는 잠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도이철란근대가 땅크, 비행기로 중무장한 170개 사단의 대병력으로 쏘련을 쳤기때문에 모를지 얼마 못가서 모스크바도 먹히우게 될것이라는 것, 때문에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가 없다면 조선독립은 힘들것 같다는것, 10년이 걸릴지, 20년후에야 되겠는지 하는 등 동이 닿지 않는 말뿐이었다.

열병광장에서 내가 절감할것은

조국의 불매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파시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돛경축 행사에 참가하고보니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다.

경축의 나날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열병식 및 군중시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 존공식,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축포야회, 경축음악회 등 모든 행사들이 그야말로 완벽하고 훌륭했다. 특히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대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국의 무진막강한 군력과 혼연일체의 위력을 내외에 파시했다고 본다. 각종포와 장갑차, 땅크, 무인타격기, 전략로켓를 비롯하여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 은빛날개를 번쩍이며 광장상공을 날아에는 비행기들을 보며 나

는 회세의 령장들을 모시여 7.27전승이 있고 련전현승의 기적이 있으며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실감했다.

오늘 공화국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전승 60돛경축 열병광장의 단상에 계시는 그분의 모습은 60년전 전승의 열병광장주석단에 계신 김일성주석의 모습 그대로였다. 원수님께서 계시여 주석의 전승업적과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세기를 이어 빛나고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또 한분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여 승리의 력사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가슴벅차게 새겨안았다. 이번 열병식에 대해 외국

의 사절들과 언론들도 《이런 열병식은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이 없이는 진행할수 없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 잘 알게 되었다.》, 《조선의 군력은 그 어떤 강대국도 당할수 없다. 자위적국방력을 가진 조선은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며 감탄을 터뜨렸다. 미국 CNN방송은 《북조선군대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준 열병식은 부족함을 찾아볼수 어려운 높은 수준의 열병식》이었다고 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조국방문에서 내가 페루로 걸간한 소견이다. 김 명호(재중동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돛경축 열병식

리복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것은 공화국의 시종 일관한 립장이다.

변함없는 통일 정책

공화국은 지금까지 우리 겨레의 절절한 통일년과 지향을 반영하여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합리적인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군축제안, 경제회담, 체육회담, 학생회담제안... 198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밝힌 고려민주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고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내의분열주의자들의 부분별한 반공화국운동으로 말미암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0년대에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것도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지지는 않을것을 막고 막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안아오려는 공화국

의 통일에국의 립장의 산물이었다. 지난 시기 북남관계발전과 관련한 여러 합의들이 채택되고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울려 퍼지게 된 것도 동족사이의 불미스러운 대결력을 끝장내고 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립장과 자세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는 할 기지이다.

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원칙적인 립장을 제시하여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심심과 락관을 안겨주었다. 얼마전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잠정중단상태에 있는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며 북남관계개선에 이여하기 위한 성의있고 대범한 계의도 하였다. 오늘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한 판단이 있지만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있고 온 겨레의 거족적인 통일투쟁이 있어 민족이 바라는 자주통일 배풀며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지향해나가고있는 때에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반목과 질서, 대결과 충돌의 연속환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상태가 여러해째 지속되고있다.

표후 북과 남은 대화와 접촉을 통하여 비방중상과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일체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현에 구현하였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서도 북과 남은

악의 과격상태에 처하였을 때인 2011년 1월에도 공화국은 조선반도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것을 제의하였으며 그 성과적실현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

기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6.15이전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가고 언제 이 땅에서 전면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초긴장상태가 오늘까지 계속되게 되었다.

대대로 한겨울을 이어온 계를 겨레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방도이며 대결과 힘의 방법으로는 불신을 더욱 증대시키고 충돌과 전쟁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이 지난 북남관계력사가 증명하는 진리이다.



긴장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이런 사태앞에 그가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누구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며 군사적대결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것을 확약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성의있는 노력은 외세와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보수진영세력의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옹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대결을 대결을 낳고 또다른 충돌과 전쟁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남조선의 이전 《정권》이 집권전기간 벌려온 악랄한 동족대결책동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피해를 볼것은 우리 겨레뿐이다. 대결과 군사적대결이 고조될수록 당사자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주앉아야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합의들이 이루어질수 있다.

외세에 의해 민족분열의 비극이 강요된 때로부터 68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조선반도에 긴장이 격화되고 북남사이의 대결이 지속되는것은 민족의 비극이고 수치가 아닐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거족적인 통일연속투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분열의 비극적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와 력사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성스러운 임무이다.

하루빨리 끝장내야 할 민족분열의 비극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전체 조선민족이 재생의 새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그날이 있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멸시와 굴욕속에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밝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다. 반민당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돌로 갈라져 살아야 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수천년세월 단일민족으로 하나된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나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온 민족은 력사도 문화도 하나인 우리 겨레가 한강도에서 화북까지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남조선의 전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선생의 사망 10년 추모식이 3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남측에서 정몽헌선생의 유가족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전 현대그룹 회장 정몽헌선생의 사망 10년 추모식 진행



통일대행진단 활동계획 발표

남조선의 대학생연합이 2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통일대행진단결성과 관련한 모임을 가지고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집권세력이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가로막고있다고 하면서 사건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다!》는 구호를 외쳤다. 모임이 끝난 다음 대학생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출시 프리덤 가디언》 합동조사연습을 반대하는 선전활동들을 벌였다.

본사기자 리경순

통일대행진단이 8월 15일 까지 대진, 대구, 부산,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를 규탄하는 범국민서명운동과 평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그 피해는 겨레모두가 고스란히 입게 될것이다. 전쟁은 삶의 질서, 삶의 리전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로폭적인 도전이며 악행이다.

이를 위해 절실한것은 온 겨레의 단합이다. 우리는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민족분열무리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공동선언의 기치밑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단합하여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쓰자

말 한마디 하고 한걸음을 옮겨도 불의를 라매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량심의 언행을 하며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언이도, 피줄도, 강토도 하나로 화목하게 살아온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은 온 겨레의 단합을 이루는데 힘을 바쳐야 한다.

여름철 휴식의 이모저모

어딜 가나 푸른빛이 완연하다 하여 옥음방초의 계절이라 일컫는 여름, 하늘에선 뜨거운 해벌이 지긋게 내려쬐이지만 땅엔 푸른 숲과 가로수들, 옥지들로 신선함이 차넘친다. 속담에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고 했다. 농작물이 낫아 영글어가는 여름철 어느 하루도 농사일을 소홀히 할수 없다는 뜻에서 선조들이 전해온 속담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름》이라는 뜻에서 썼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 계절 부지런히 일하면서 휴식도 하곤 하였다.

오늘날 풍치수려한 환경에서 삼복계절을 보내는 평양시민들의 문화생활 또한

이채롭다. 평양시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대성산과 모란봉을 빼놓을수 없다. 대성산에서 만난 평양기초식품공장 노동자 박경애녀성은 《가는 곳마다 명소이고 명소마다 휴식처들이 갖추어져있으니 무더위를 식히며 휴식하기에는 정말 좋다.》고 말하였다.

평양의 이름난 명승인 모란봉에서도 곳곳에 소풍과 들놀이로 나온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다. 예로부터 모란봉 울밀대의 봄맛이를 가리켜 평양8경의 하나로 불리왔건만 울밀대의 여름풍경 또한 그에 못지 않다. 그런가하면 대동강과 보통강의 푸른 물결에는 보트놀이 하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수양버들 늘어진 유보도

에서는 윗놀이와 장기, 주패놀이 등 다양한 오락도 한창이다.

보통강반에 홀로허 켜진 빙상판, 밖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이지만 무더운 삼복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이곳은 한겨울이다. 서로 손을 맞잡고 얼음판위를 달리며 스케트라기에 여념이 없는 청춘남녀들, 그들속에는 뒤로지치고 회전훈련 등 취거동작속면에 열중하는 취거애호가들도 있다.

여름휴일에 샤프를 입고 스케트를 타는 풍경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생활을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의 풍만한 정서와 랑만을 여름철의 문화정서생활에서도 엿볼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중 제일 더운 때를 삼복 또는 복날, 복철이라 하며 그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말한다.

삼복이라는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일찍부터 문명하고 지혜로왔던 우리 선조들은 농사와 관련한 달력을 만들어 제일 더운 때를 삼복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맞게 농사를 지었다.

하지가 지난 다음 세번째의 경일이 초복이고 네번째의 경일이 중복이며 립추후의 첫번째 경일이 말복이다.

초복, 중복, 말복기간의 더위를 삼복철더위라고 한다. 이 기간에는 낮기온이 몹시 오르고 대기습도가 높는데다가 밤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한해중 제일 무덥다.

삼복철의 한때에는 그늘

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 굽으로 땀이 줄줄이 흘러내린다.

은 한해 들에서 산에서 일하는 근면한 농민들도 삼복기간에만은 한낮의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곳에서 쉬고 이른아침이나 해가 서천오기후는 저녁녘에 일손을 잠곤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삼복철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전해 오고있다. 지난 시기 초복이 제일 빠른 날자는 7월 12일이었고 제일 늦은 날자는 7월 23일이였다. 중복과 말복사이가 20일간격을 두는 경우도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경치좋은 곳들에 꾸러진 공원과 유원지,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시원한 물에 삼복더위 날아나

해마다 찾아오는 삼복이지만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다.

소풍도 꼬부라든다는 삼복철에는 시원한 물속에서 달아오른 몸을 식히는것이상 좋은것이 없다. 그래서인지 요즘 도처에 홀로허 켜진 물놀이장과 수영장은 매일같이 초만원이다. 가족 혹은 직장단위로 일요일과 같은 휴식일은 물론 하루일을 끝마치고 떠나할것 없이 곳곳의 수영장과 물놀이장들을 찾는다.

파아란 하늘이 비낀듯 한 물속에서 물장구를 치며 깔깔거리는 아이들과 각이한 놀이

의 조약대에 올라 물에 뛰어 들기를 하는 청춘남녀들, 시원하게 덕수를 맞는 로인들, 아찔하게 내리쬐는 물미끄럼대를 따라 손살같이 미끄러져 내리는 짜릿한 쾌감에 좋아라 탄성을 터치는 여기는 트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이다.

금방 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온 평양시 중구역 동흥동에 산다는 김영춘(49살)녀성은 《오늘 직장동무들과 함께 이곳에 들렀는데 너무 좋아 시간가는줄 모르겠다. 휴식일에 남편, 아이들과 함께 또 오겠다.》며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현대적으로 개건된

만경대물놀이장과 창광원수영장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꾸러진 수영장과 물놀이장들마다에서도 시원한 물속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흥취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송도원과 마전, 남포 등지의 해수욕장들마다에서는 넘실거리는 파도와 더불어 해수욕과 일산인해를 이루고있다.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이지만 물놀이장들마다에서는 사람들이 시원한 여름을 즐기고있다.

본사기자 권지혜



창광원에서 진행된 위원회, 성, 중앙기관일군 수영경기



릉라인민유원지 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



창광원물놀이장에서

《이열치열》 — 단고기국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삼복더위기간에 특별히 마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극복하였다.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단고기국을 먹으며 땀을 내곤 하였다.

우리 나라의 년중행사 및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

기》는 단고기국에 양념을 넣고 밥을 말아서 땀흘려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민족의 향취넘치는 단고기국밥을 잘 만들어 해내외에 널리 알려진 평양단고기집은 말복을 앞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이곳 단고기집에서 쫄쫄밥과 함께 뜨거운 김이 문문 나는 단고기국밥에 갖가지 부위별 로리를 곁들여 봉사하고있는 데 손님들속에서 평판이 자자하다. 처녀시절부터 단고기 요리사로 일해오는 이곳 단고기집의 조정여부장은 《단고기 100g에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이 들어있

다.》고 하면서 삼복철의 영양음식으로서 단고기이상 없다고 말한다.

단고기국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도처에 단고기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종합시장아래의 암식당도 단고기요리를 특색있게 잘 만들어 소문이 났다. 민족의 자랑인 단고기국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영양가있게 만들것인가 하는 일념으로 사색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김옥순, 김정희 요리사들이 있어 이곳 식당은 늘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오래전부터 영양량, 보신량 등으로 불리워온 단고기국, 한여름철 땀을 철철 흘리며 단고기국밥을 맛있게 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도 먼먼히 이어지는 유구한 민족전통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다.

본사기자 박원평

속담에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고 했다. 그만큼 더위를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요즘 물놀이장과 수영장 못지 않게 인기를 끄는것은 시원하고 쯤-한 대동강맥주이다. 부글부글 흰 거품이 피어오르는 대동강맥주를 보지만 해도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땀이 쏙 들어가는 것만 같다.

원래 평양의 대동강맥주라고 하면 그 맛과 질에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맥주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유명하여 사계절 어느때나 인

그 맛에 반하여 더위도 잊는다

기 있지만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삼복기간에는 그 수효가 몇배나 경중 뛰어나오다. 요즘 시내 곳곳의 대동강맥주집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원래 평양의 대동강맥주라고 하면 그 맛과 질에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맥주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유명하여 사계절 어느때나 인

그 맛에 반하여 더위도 잊는다

기 있지만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삼복기간에는 그 수효가 몇배나 경중 뛰어나오다. 요즘 시내 곳곳의 대동강맥주집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원래 평양의 대동강맥주라고 하면 그 맛과 질에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맥주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로 유명하여 사계절 어느때나 인

그 맛에 반하여 더위도 잊는다

기 있지만 한해치고 제일 무더운 삼복기간에는 그 수효가 몇배나 경중 뛰어나오다. 요즘 시내 곳곳의 대동강맥주집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평양 단고기 집에서

종로정량음료점에서

모란봉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가정



지금 온 나라 도처에서 건설의 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수도 평양에서도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곳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새 아파트들을 볼수 있다.

사진은 최근 평양시에 새로 일떠서고있는 일부 아파트들의 모습이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어 살림집들주변에 각종 편의봉사시설과 마을, 조국산천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지고 현대적인 문화후생 시설과 공원, 유원지들이 더 많이 건설되어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해가는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진정한 민족주의자이시다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2(2013)년 8월 14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잠을 자는 《소물이군》

오늘도 조선미술박물관에 가면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유명한 그림 《소물이군》이 있다. 그림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곤해서 소를 놓아둔채 나무밑에서 배를 드러내놓고 코를 풀며 자는 농민의 모습이 생동하게 묘사되어있다.

당시 우리 나라 농촌생활의 일단을 감명깊게 펼쳐낸 그림에는 화면의 한가운데 커다란 황소가 그려져있고 그 오른쪽 한편에는 여름철의 그늘밑에서 낮잠에 든 농민의 형상이 소박하면서도 꾸밈없이 형상되어있다. 고된 일에 지치고 거뭇거뭇하게 탄 얼굴, 옷깃을 풀어헤쳐 드러낸 배꼽, 더부룩한 머리는 당시 봉건사회에서 천대받던 최하층농민의 모습 그대로이다. 힘겨운 일에서 벗어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의 모습 역시 온순하고 힘이 센 우리 나라 부림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다.

구수한 농냄새가 풍기는 듯 하면서도 구도가 짜여있고 묘사가 뛰어난 이 그림은 18세기에 창작되었지만 지금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듯 발길을 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잠을 자고있는 《소물이군》의 형상이 얼마나 인상깊었는지 언젠가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하면서 그림 《소물이군》을 본 어느 한 외국인은 몇해후 자기 나라에 온 조선대표단성원에게 지금도 《소물이군》이 잠을 자고있는가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생동한 필치와 진실한 형상으로 사람들속에 깊은 인상을 주고있는 그림 《소물이군》은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화가 김두량의 창작품이다.

김두량은 어려서부터 도화사 화원이었던 아버지와의 할아버지에게서 그림그리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인물, 산수, 동물 등 여러 종류의 그림에 능숙했으며 특히 인물 풍속화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김두량은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농민생활에 가까이 접근하고 거기에 서 묘사대상을 찾아내어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나라 회화예술의 주제영역을 확대하고 사실주의적 화법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이름있는 미술가였다.

허성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의 발명

술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고려시기인 11세기말 12세기초에 벌써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조선력사박물관에 전시된 고려청동활자는 당시의 활자 주조기술과 인쇄기술의 발전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 금속활자는 녹음점이 비교적 낮은 동, 석, 연을 주성분으로 하고 규소, 철, 알루미늄을 부성분으로 한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인쇄기술은 물론 당대사회의 금속주조 및 가공기술의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금속활자로 출판된 책으로는 1297-1298년에 찍은 《청량담순종심요법문》, 1317-1324년의 《공자가이》 등이다.

고려시기의 금속활자 인쇄 기술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 더욱 발전되었다.

1455년에 주조된 활자를 분석해보아도 합금기술 역시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의 인쇄기술의 발전력은 15세기에 그 규모가 매우 컸던 출판인쇄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경국대전》 공전 장조에 의하면 교서관에는 166~170여명이 일했는바 이것은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 40명의 종업원을 가진 인쇄공장이 제일 컸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당대의 인쇄공정의 진화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의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의 발명은 현대문명의 금속활자 발전을 안아온 오늘의 고속 레이저인쇄기술의 발명과 같이 중세기의 인류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준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관인쇄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경국대전》 공전 장조에 의하면 교서관에는 166~170여명이 일했는바 이것은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 40명의 종업원을 가진 인쇄공장이 제일 컸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당대의 인쇄공정의 진화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의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의 발명은 현대문명의 금속활자 발전을 안아온 오늘의 고속 레이저인쇄기술의 발명과 같이 중세기의 인류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준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고려약을 쓸 때 알아야 할 세가지 특성

신약은 병적증상이 같으면 대체로 같은 약을 쓴다. 그러나 고려약은 많은 경우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의 상태에 맞게 약을 쓴다. 이것이 신약과 고려약을 쓰는 데서 다른 점이다.

고려약에는 《상약》, 《중약》, 《하약》이라는 세가지 특성이 있다.

《상약》은 보다 안전한

약으로서 오랜 기간 쓸수 있으며 예방을 목적으로도 쓸수 있다.

《중약》은 《하약》보다 작용이 약하고 쓰는 량도 적으며 일정한 기간 쓸수 있다.

《하약》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으로서 작용이 센 반면에 부작용이 심하다.

피부타가 해하 빛려에

홍당무 우추과 글리세린을 2:1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얼굴과 목을 비롯한 노출된 피부에 맞춰서 바르고 잘 비벼준다음 밖에 나가면 피부가 해벌에 덜 타면서 건강해진다.

본사기자

봄의 협주곡 (1)

글 류준, 그림 김윤일

1

한원림은 잔에 술을 붓고 있는 남자를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런정의 눈에 깊숙이 빠진 처녀들이 밤마다 뒤척거리며 그러불만치 잘 생긴 얼굴, 남다른 튼튼한 자세, 주름잡힌 입을 말쑥한 양복차림...

두레전 원림이가 다니는 K연구소에 입직한 변용이다.

K연구소는 남북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수많은 연구소들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통일부 실장이나 국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제 집처럼 다스리는것을 보면서도 확실하든 연구소들과 달랐다. 얼마전에는 연구소헌관앞에 통일부 차관의 고급 승용차가 오전네댓 서있는 일도 있었다.

저녁무렵 원림이 퇴근하려는데 대학후배인 변용이가

찾아왔다.

《선배님, 오늘저녁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동이나 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지 않았으면 뭘가 뻔뻔한 편정 소설책이나 뒤적거리면서 로 총각의 고독함을 달래야 하는 원림으로서 그 초청을 굳이 거절해야 할 리유도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후배와 한데 어울려 흥취 취하는것도 편찮을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따라온것이 이곳 음식점이었다.

술잔들이 허공에서 세번 번 번뚱치고 화가에한 분위기가 식탁주위를 봄안개마냥 감싸고있을 무렵 대학후배가 말을 꺼냈다.

《대학시절에 거물로 삼고 싶은 훌륭한 선배를 만나는 것은 아무에게나 차례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전 운수가 좋았습니다. 대학2학년때인데 그날 전

오른손을 쥐었다놓았다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난감한 처지에 빠지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와 맞닥들했을 때 나타내준 하는 버릇이었다.

아닌게아니라 원림은 딱했다. 사실 그러하면 일은 대학뿐만아니라 직장이나 길거리에서도 흔히 있을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 일을 몇해가 지난 오늘까지 생생히 기억하고있는 후배를 보느라니 그때의 일을 꼬물꼬물도 떠올리지 못하는 자신의 무딘 기억력에 혀를 차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고 확실치 않으면서도 단지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아, 생각나구말구.》 하고 반가와하는척 하는 따위의 서툰 짜리 연기는 하기 싫었다.

이윽고 원림의 오른손이 잠든 새처럼 잠잠해졌다.

《술직히 말해서 난 그렇게 좋은 선배는 못되네.》

《겸손한 말씀입니다. 초저녁들이 더우면 새벽기들도 더운법 아닙니까. 제 연구소에 들어와보니 선배님소문이 자자합니다. 현대 선배님더러...》

《왜서인지 도중에 말꼬리를

장마철의 건강관리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 무더위, 번덕스러운 날씨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진다.

우선 장마기간에는 우울성 소화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비가 당장 올것같은데도 오지 않는 제비등 한 날씨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소화가 잘 안되는 데 이때에는 소화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체조 등 간단한 운동을 하는것이 소화에 좋다.

또한 장마철기간에 폐가 매우 나빠질수 있다.

날씨가 흐리고 습해지면 습한 공기가 폐에 많이 들어가 병균이 많아지고 먼지와 병균을 간으로 옮기는 세로도 많아지게 된다. 이때 사람은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쉽게 걸리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폐염에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방한을 선택하고 항상 건조시키고 감기에 걸리면 1주일 이상 나고 기침이 계속되면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장마철에는 설사증도 많아진다.

덥고 습한 장마기간에는 온갖 균류들이 번성하여 물과 음식물을 오염, 변질시키기 쉽다. 그러므로 물은 반드시 끓여마시거나 끓인 물을 램프기안에 넣었다가 마셔야 하며 음식물들에 대한 보관관리를 잘하고 변질된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그를 왜 《시음》이라 불렀는가

김시습(1435-1493)은 태어난지 얼마후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였다 한다.

아이의 재능이 하도 놀라와 외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에 앞서 글자부터 배워주었다.

글자를 배워준 다음 아이에게 그 글자를 내보이며 무슨 글자인가고 물으면 아이는 말을 아슬아슬도 그 뜻을 실물이나 그림 같은것을 가리켜 보여주곤 하였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다 놓고 시를 읊어주었다.

꽃은 란간에서 웃어도

그를 왜 《시음》이라 불렀는가

소리 듣지 못하니라

그러자 시습은 계속 일어나 가장아들 걸어가더니 병풍에 그려져있는 꽃을 가리켰다.

외할아버지는 너무도 기뻐하여 이번에는 이런 시구절을 읊었다.

새는 수풀에서 울건만 눈물을 볼수 없노라

시를 듣고 잠시 주위를 둘러번기며 생각에 잠겨있던 시습은 인차 마루끝으로 걸어나가 처마밑에서 우짖는 새를 가리키며 방긋이 웃었다.

본사기자

그를 왜 《시음》이라 불렀는가

병풍에는 새가 없고 마침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어느날 이 소문을 들은 당시의 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최치운은 김시습을 찾아왔다.

그는 김시습을 매우 존경하여 이번에는 이런 시구절을 시험해보고나서 외할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배우면 즉시 익히는 총명한 아이요. 그의 이름은 《시습》이라 하고 《시습》이란 이름이 하도 그럴듯 하여 그 이후 그의 이름은 김시습으로 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대신해준데 대해 다형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목욕히 술잔을 비운 원림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

《(오토기) 라는거겠지요?》

변용은 빙그레 웃었는데 보며 자기가 차마 입밖에 낼수 없었던 그 말을 본인이

《(봄)을 부락할가요?》

그가 식탁으로 돌아오자 곧 빠르고 경쾌한 바이올린 협주곡이 울리기 시작했다.

원림의 눈앞에 약동하는 봄의 전경이 그려지고있었다.

즐겁게 지저귀며 숲속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 불멸할 생의 노래를 부르듯 풍뎉기 울음속에 파묻으면서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비발디의 《사계절》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원림은 눈앞에 약동하는 봄의 전경이 그려지고있었다.

즐겁게 지저귀며 숲속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 불멸할 생의 노래를 부르듯 풍뎉기 울음속에 파묻으면서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비발디의 《사계절》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원림은 눈앞에 약동하는 봄의 전경이 그려지고있었다.

즐겁게 지저귀며 숲속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 불멸할 생의 노래를 부르듯 풍뎉기 울음속에 파묻으면서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비발디의 《사계절》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원림은 눈앞에 약동하는 봄의 전경이 그려지고있었다.

즐겁게 지저귀며 숲속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들, 불멸할 생의 노래를 부르듯 풍뎉기 울음속에 파묻으면서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비발디의 《사계절》이 있습니까?... 그중에서

나 좋을까 하고 공상했다.

달콤한 공상의 물레바퀴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쉬임없이 돌아갔고 그속에서 원림은 차츰 달라져갔다. 힘이 딸려서 큰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돌아오면 이를 사러 물고 래전도흔편을 했고 달리기에서 지고나면 은밤 죄없는 동태들을 놀래우면서 속초가 될 때까지 꾀박박을 하곤 했다. 전교적인 최우수생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책우에 코피를 툴뚝 땀구는 그달콤한 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강한 자존심과 뛰어난 실력!

이것은 약육강식의 란무장인 이 땅에서 한원림이라는 《오토기》를 골건히 지켜준 《첼딩이》였다.

《첼딩이》는 후날 그에게 바란것 이상의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동료들은 남들처럼 든든한 배경이 없고 돈지갑도 늘 비어있던 그가 명문 대학인 S대학을 최우수생으로 졸업할수 있었던것도 그리고 K연구소에 별다른 목적 없이 입학한것도 《첼딩이》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